

이재명 선대위 “국민만 보고 신속 전진”

6개 본부로 통폐합 조직개편 완료 일·능력·기동성 중심 체제로 전환 홍보본부장 MBC PD 출신 김영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기준 16개 본부를 6개 본부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선대위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일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가 출범한 지 정확히 한 달만이다.

조직 쇄신의 핵심은 매머드급 선대위의 육상육 구조를 과감히 폐지해 조직의 기동성을 끌어올린 데 있다. ‘후보-선대위원장-총괄본부장-각 본부’로 짜인 다층적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한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당내 선대위 재편 요구가 일자 “기민함이 부족한 것 같다”며 쇄신의 콘셉트로 말을 타고 대륙을 질주하는 몽골·고구려의 ‘기병(騎兵)’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임명 발표식에서도 “선대위가 매우 무

거위 기민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오롯이 국민만 보고 국민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전진했으면 한다.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속도감 있게 실적을 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이날부터 기존 총괄본부장 산하의 16개 본부를 전면 재편해 ▲총무(김영진) ▲전략기획(강훈식) ▲정책(윤후덕) ▲조직(이원숙) ▲기능(김병욱) ▲홍보(김영희 전 MBC 부사장) 등 6개 본부로 축소·통합했다. 또 총괄본부장을 없애고 각 본부를 상임선대위원장 산하로 뒀다. 사실상 6명의 본부장인 선대위 최전선에서 뛰며 상임선대위원장 및 이 후보와 실시간 소통하는 체제로 재정비된 것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선대위 개편의 골자는 일 중심, 능력 중심, 기동성 중심”이라며 “실제로 일을 하는 체제로 단순화했다. 모든 의원은 이제 현장으로, 지역으로 가서 국민, 당원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선대위가 ‘원팀’에 치중하며 각 경선 후보 측 인사를 고루 등용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쇄

신 선대위’에는 이 후보의 측근 인사들이 다수 전면 배치됐다. 선대위 쇄신 방향인 실무 중심의 효율성과 기동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앞서 총무본부장에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이 선임된 데 이어 이날 임명된 윤후덕 정책본부장, 김병욱 기능본부장도 경선 때부터 이 후보와 함께한 인사들이다. 윤후덕 의원은 캠프에서 정책개발을 총괄했고, 이른바 7인회 멤버인 김병욱 의원도 캠프에서 적총괄본부장을 맡았었다.

이 후보는 “당내 여러 의원께서 백의종군해 주시고 당을 위해 선당후사 하겠다는 그 결의 덕분에 이렇게 슬림하고 기민한 선대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작게라도 신속하게 실천해 내서 성과를 축적하는 민주당 선대위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6명 본부장 가운데 유일한 외부인사인 MBC PD 출신의 김영희 홍보본부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국민은 지금 정치에 피로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대선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국민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준석 대표에 쏠린 눈과 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이준석, 등 돌리고 서로 작심 저격

尹 “리프레시하시라” 李 “홍보 외엔 관심 없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2일 서로 잡아왔던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후보 측은 ‘이준석 패싱’ 논란에서 촉발된 초유의 당 대표 공백 사태로, 국민의힘 선대위는 공식 출범식(6일)을 앞두고 기억 없이 표류하는 모양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간담회 후 ‘이 대표 복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무리하게 (복귀를) 압박하듯이 할 생각은 사실 없었다”고 답했다.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이 대표부터 만나

복귀를 설득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 사흘간 부산, 순천, 여수를 거쳐 제주를 방문 중인 이 대표를 향해 “본인도 어느 정도 리프레시(재충전)를 했으면...”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가 ‘패싱’에 항의해 사실상 당무를 거부하고 여의도를 떠나버린 것을 ‘한가한 재충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윤 후보는 2박 3일의 충청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마친 데 이어 이날도 새벽부터 종일 강행군하며 ‘마이웨이’를 이어갔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이 당무 거부냐 얘기하시는 데, 우리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저는 당무를 한 적

이 없다”고 작심 발언했다. 이어 “후보의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이후 제 기억에 딱 한 건 이외에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실했다. 잠행에 나선 배경에 대해선 “필요하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모욕적 인식”이라며 “윤 후보가 어떤 걸저와 상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저희 간의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오는 6일로 예정된 선대위 발족식에도 불참하겠다고 못 박았다. 당장 상황할 계획이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됐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공동으로 상임선대위원장장을 맡은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제 영역(홍보) 외에는 다른 큰 관심사가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의 ‘비협조’도 예고했다. /연합뉴스

민주 ‘영입 1호’ 조동연 논란 곤혹 이재명 “국민 판단 지켜 보겠다”

쇄신 이미지 퇴색 역풍 우려 속 “선제적 결단” vs “과도한 반응”

더불어민주당이 조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에 곤혹스러운 처지다.

국방·우주 관련 경력, ‘30대 워킹맘’ 등 스펙을 갖춘 조 위원장을 ‘영입 1호’로 야심 차게 수혈했지만, 뜻하지 않은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며 쇄신 이미지가 퇴색되고 오히려 민심을 자극해 역풍이 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감지된다. 송영길 대표의 조 위원장을 삼고초려해서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풍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견과 공적 역할과 무관한 사생활을 이유로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여론의 향방에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선대위 국가인재위원회 총괄 단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2일 CBS 라디오에서 사건을 전제로 “국민적인 정서나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본인이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조 위원장이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일단 정확하게 당사자로부터의 확인과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며 “그것에 따라서 이후의 대책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의 영입은 자신이 맡은 국가인재위가 아닌 당 대표 중심으로 추진했다고 백 의원은 덧붙였다.

반면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사생활을) 모르고 영입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본인에게 해명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오늘 첫 메시지도 괜찮았다고 본다.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인 이 의혹에 휩싸였을 때처럼 바로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역풍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선대위 핵심 측은 일단 여론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영입 인사 및 본부장단 임명 발표 행사에서 조 위원장 사생활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모든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안철수 “청년 인기 비결은?” 홍준표 “거짓말 안해서”

안, 홍 플랫폼 ‘청년의꿈’ 글 남겨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2030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등장했다.

안 후보는 2일 ‘청문홍담’ (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게시판에 ‘찰스형’이란 아이디로 ‘왜 청년들은 홍준표 의원님을 좋아하고 열광할까요?’라는 제목의 질문을 썼다.

안 후보는 게시물 본문에서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안철수(찰스형) 올림”이라고 적었다.

이에 홍 의원은 ‘준표형’이란 아이디로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진심으로 대하고 거짓말 안 하고 공감하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요.”라고 답글을 달았다.

#청년의꿈 플랫폼에 종종 정치인 이름의 아이디가 등장했지만, 실제 정치인이 질문 글을 올린 것은 처음이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진짜 안 후보가 올린 글”이라며 “안 후보가 청년세대의 마음을 얻은 홍 의원의 노하우를 공유받고 청년의 언어로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직접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구충곤 화순군수,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구충곤 화순군수가 2일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구 군수는 이날 오전 화순군의회 본회의에서 “배 풀어 주신 성원에 더 큰 비상으로 보답하겠다”며 내년 6월로 예정된 제8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재선인 구 군수는 3선에 도전하지 않는 대신 국회 입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동안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 준 군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언제나 분에

넘치는 애정과 성원으로 힘을 보태주고 저를 북돋아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저는 더 큰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나서려 한다”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 지역 현안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래도 구 군수가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p>상가매매 (상무지구)</p>	<p>장성 토지(매매 분양)</p>
<p>6, 7층 (140평)분양[중심상업지구] 감정가(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00, 용 3억5천)</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p>
<p>1) 6층(80평 분양) 감정가(시세) -> 6억 (보2천,월200) 급매가 -> 4억 5천 2) 7층(60평 분양) 감정가(시세) -> 4억 (보1천,월100) 급매가 -> 2억 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빠,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p>	<p>(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010-6670-9800</p>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